

## 《12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11월도 지나고 이제 2020년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슬로바키아는 성탄 연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취소되었습니다. 매년 광장에 세워졌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다보니 연말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성탄 연휴를 준비하는 현지인들을 보면 그래도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현지 사람들은 겨울 야외 스포츠를 시작합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산맥을 종주합니다. 그러다가 추위를 피하는 작은 오두막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 앞에 시외 버스 터미널이 등산을 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슬로바키아의 코로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하루 평균 1,5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5백 5십만명인 나라에서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것은 서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교해 볼 때 이들 나라에 못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 3주에 걸쳐 전국민 항원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월말에 위중환자들 중심으로 백심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는지 기다려보아야 할 듯합니다.

11월 셋째 주부터 다시 대면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가능인원의 50%만 예배를 드려야 해서 다시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이다보니 예배 후 쉽게 집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문 앞에 모여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한글학교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잘 참아주고 예방수칙을 잘 따

라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저와 아내는 내년에 안식년을 가려 합니다. 10년을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는데, 잠시 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비자가 만기되다보니 안식년을 가기 전에 연장을 해놓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년을 떠나는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안식년을 준비하는데, 성도분들이 부담없이 가서 지내고 오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인수인계할 부분들도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마침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박완주 목사님께서 격주로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못 오시는 주일에는 줌(zoom)으로 설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진이도 함께 나갑니다. 우진이는 이곳 현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 합니다. 어린 나이에 여기에 와서 지내다 보니 다시 한국에 가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래에 12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 드림

※ 12월 기도제목

- ① 12월 첫 주에 있는 교인총회가 잘 마치도록
- ② 안식년 준비와 인수인계를 잘 마치도록
- ③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 ④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도록
- ⑤ 2021년 질리나한인교회의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